

양돈
동향과 전망

양돈경기회복낙관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가뭄 걱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절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간의 문명이 별들을 왕래한다지만 자연의 섭리와 조물주의 범주는 넘어설 수 없는게 인간들 이라고 생각하면서 대기와 수질의 오염은 인간들이 자행한 일이니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심심하면 우리의 농축산물을 놓고 물고 뜯는 미국 무역 대표부는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산 육류의 유통기한을 폐지하지는 공갈 협박을 한 모양이다. 그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계는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음과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쟁체제에서 어떠한 치명타를 맞게 될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게 오늘 국내 축산업계의 표정이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경제전쟁은 인간이 지상에서 사는 한 계속되어 질 것을...

2. 출하 대상돈 점검예상

3월에 출하될 놈들을 추적해 보면 6개월 전에 분만('94년 9월)하였고 거기서 4개월 거슬러 올라가면 '94년 5월에 수태된 놈들이다. 수태율이 높았을 것은 당연하지만 임신말기(7, 8, 9월)의 혹서로 인하여 임신돈이 잘못된 사례가 많음을 감안한다면 출하 대상돈이 예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다음(도표1)에서 알 수 있다.

〈표 1〉 사료생산량

구 분	두 수 통 계	사료생산량 (육성, 비육사료)
'94년 1월	5,927천두	165,741kg
'95년 1월	5,955	158,505kg
증 감 륜	100.4%	95%

※전년동기대비 같은 두수 수준에서 육성 및 비육사료 합계가 5% 감량 생산됨.

이런 현상은 4월 출하 대상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며 4월이 지나서 5~6월 출하 대상돈은 수정 시기가 7~8월로서 또한 생산량이 격감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번의 악영향은 단순하게 끝나는데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영향이 파생되게 되므로 자연과의 전쟁이요 질병과의 전쟁 수입 축산물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고달픈 연속인 것이다.

3. 수입육 방출량 짐체

설 연휴 이후로 소비가 침체되고 따라서 수입 육도 하루에 20톤도 못되는 물량 정도로 방출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3~4월에 입하될 8천5백톤의 물량을 의식하고 업체들은 사재기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그간의 수입육 이용은 소비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유통업체들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2월 21일 현재 재고량은 5천톤도 넘는 물량이 남아있고 3월과 4월을 기하여 8천5백톤이 들어 오게 되었으니 이들 물량은 오는 5~6월의 폭등세에 한 몫을 하자는 가격 안정용이 되는 것이다. 최근 자돈 시세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는 정보다. 이것은 6월을 겨냥한 것이자 실제로 지난해 8월의 수태돈이 적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 되지 않을까도 염려해 보게 되는 것은 그토록 위협적인 폭등을 예시한 만큼 그에 대한 대처도 만만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3월경기 서서히 호전

양돈 경기의 호황은 어느 선을 두고 말하는가?

이는 농장의 사육비 투자와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겠으나 일반적으로 생산비 두당 12만원을 계산한다면 최소한 13만원(지육kg당 2,

240원) 받아야 최저소득 보장이 될 것이고 두당 14만원(지육kg당 2,400원 이상)은 되어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거기서 두당 15만원(지육 2,586원) 선이면 폭등세로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방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보아왔다.

설세고 난후 경기가 오히려 호전된 것은 전에 찾기 어려운 특이 현상이었고 이 또한 '94년 8월 분만 모돈들이 흑서로 인한 타격이 심하였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9월의 분만 대상축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인 즉 출하 대상축은 충분치 못하고 따라서 시세는 서서히 호전될 것이 아닌가로 분석하게 된다. '95년 1월 지육kg당 평균가격은 2천3백57원이었고 2월 들어 설세고 난 후로도 오히려 호전 2천3백83원(상순)이었고 중순에는 2천3백44원이었으니 시세는 좋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도 특이 현상은 구정 직후의 시세가(2월초) 중순시세보다 좋았으니 생산자들이 두뇌 회전을 잘하여 미리부터 대비했고 출하 물량이 격감된데에서 기현상이 출현된 것이다.

이제 남은 요점 문제는 앞으로 3~4월의 시세가 되겠는데 대개의 경우는 3월시세가 2월시세보다는 좋게 형성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모든 것이 기현상으로 진행되고 보니 성급히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워지지만 사료 생산량 측면에서 본다면 매물 대상돈이 많지 않겠으므로 시세는 서서히 오르막 길로 치달겠다고 판단하고 싶다.

